

플랜트산업 포럼 10월 24-27일 서울 개최

해외 플랜트관련 주요 발주처 및 국제상업은행 CEO, 기자재 바이어, 정부인사 등 73명이 한국에 모인다.

산업자원부와 한국플랜트산업협회, 한국수출보험공사는 플랜트를 통해 기업과 국가간 상생협력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플랜트 수주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10월24-27일 메리어트호텔에서 <2007 Plant Industry Forum>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.

포럼은 고유가 시대에 오일머니를 환류하고 수출 성장동력으로 떠오른 플랜트산업에 대해 국내기업의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됐다.

포럼의 주 행사인 10월24일 세계 플랜트시장 세미나에서는 주요 발주처 CEO 및 국내 플랜트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, 홍석우 산자부 무역투자정책본부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나이지리아, 이집트, 콜롬비아 등 각국의 주요 플랜트 CEO들이 지역별 플랜트시장 동향과 전망을 발표한다.

특히, 세계 플랜트시장 세미나에서는 남아프리카 400억달러, 나이지리아 132억달러, 파키스탄 60억달러, 인도 27억달러, 이집트 26억달러 등 650억달러 수준의 플랜트 발주계획이 발표되고, 국내기업들과 수주상담도 벌일 예정이다.

또 10월24-28일 개최되는 2007 한국기계산업대전과 연계해 중소 기자재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수출상담회도 개최된다.

한편, 세미나 초청인사들은 10월25-27일 두산중공업, 현대건설, GS건설, 여천석유화학단지 등 주요 산업시설들을 시찰할 예정이다. <김 은 기자>

<화학저널 2007/10/23>